

한 번만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바울은 이 죄의 법칙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말해주었습니다.

롬6:3-4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a)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침례를 받은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a. 또는 세례)4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골2:12 여러분은 c)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c. 또는 세례)

그렇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반복적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의 법칙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원문에 의하면, 세례가 아닙니다. “침례”입니다. 물 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뒤로 넘겨서 물 속에 잠기게 한 다음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침례입니다. 침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죄짓기를 좋아하는 옛사람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못된 성질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못된 습관을 장사지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되셨습니까? 제자삼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것입니다. 전에 우리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좋아하는 우리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주인을 맞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자는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자신을 십자가에 못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주 예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뜻이 내게 관철되도록 해야 합니다. 내 성질대로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옛사람이 살아 있어서 지상최대의 명령이 무효화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라도 다시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가르치면서”입니다. ‘지키도록’은 부정사구문이며, ‘가르치면서’는 “세례를 주면서”와 똑같이 “현재분사능동태, 주격남성2인칭복수” 구문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는 계속해서 지키도록 가르치면서”라는 뜻입니다. 지상최대의 명령을 수행한다고 했지만 실패한 요인은 지상최대의 명령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때문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영적인 바리새인을 양산했을 뿐 진정한 제자를 산출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제자가 된 듯하여 이방민족에게 복음

을 전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자가 아닌 존재였기에 그 열기도 식어졌고, 그들도 다시 세상의 가르침 안으로 돌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무엇 때문에 힘들게 말씀을 지켜야 하느냐면서 말씀을 무시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작 우상숭배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술을 마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도끼로 쳐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다고 해서 천국에 들여보내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제자삼는다고 하면서 내가 전도했던 사람을 죽은 믿음을 가진 자로 만들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로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죄지는 자라도 용서하라”고 했으면 용서할 줄 아는 자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안 한다고 해도 그냥 놔두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그런 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지상최대의 명령에서 무엇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를 산출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양산해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잘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불량품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좋을 때에는 참 사람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닥칠 때 그 사람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처럼 순종한다면 그는 참된 제자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말고 내 들보를 보고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기는 빠르면서도 자기의 허물은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성도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런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불량품을 천국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불품이 없어도 회개하는 자를 데려가십니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은 가운데, 나를 따라오는 자에게도 그 말씀 그대로 따라오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때까지입니다. 지킬 때까지입니다. “현재분사”입니다.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지키지도 않은데, 신앙생활을 20년했다고 그냥 봐주었습니다. 엄히 책망해야 하는데 책망하지 않은 상태로 놔 둔 것입니다. 그러니 10년 20년 신앙생활해도 개망나니처럼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하고 아무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옥입니다.

망 있습니다. 망 있습니다.

니다. 그것도 ○○○○ ○○○ 주면서, ○○○○ ○○○○ 가르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양산되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것입니다.
그 상급을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늘에서 모든 것
입니다. 무엇보다도 죽 우리의 모든 것 하
나의 모든 것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령님이 대신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섬기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일, 나의 모든 것 말씀
나의 모든 것 일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
야 그것이 복으로 다시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놀라운 하늘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장자의 명령과 선포〉

1) 감사와 회개

주여, 제자삼으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제자삼는 방법이 침례를 주고 지키도록 가르치는 일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세례가 회개하여 죄사함받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침례의 의미가 나의 옛사람을 장사지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세례란 주인이 바뀌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지 못했나이다. 용서해주소서.

2) 장자권 누림의 결단

주여, 이제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겠나이다.

주여, 이제는 누구든지 세례주고 지키도록 가르치겠나이다.

주여, 이제는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겠나이다.

주여, 이제는 주인을 바꾸는 자가 되게 하겠나이다.

주여, 이제는 지키도록 가르치겠나이다.

3) 장자권의 누림, 명령과 선포

이제까지 제자로 만들지 못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불어넣은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제자삼지 못하도록 방해하던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회개할지어다.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4) 오늘의 말씀의 핵심

1.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상명령을 잘못 가르쳤고 잘못 실행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2.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은 곧 모든 사람을 제자삼는 말씀과 같은거였구나.

3. 제자를 삼으려면 세례를 주고 지키도록 가르쳐야 하는구나.

4. 세례받는 것은 회개하면 자신의 죄가 예수의 피로 씻겨져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표시로구나.

5. 세례란 주인을 바꾸라는 것이었구나.

6. 지키도록 가르치는 일은 예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실천하는 거로구나.